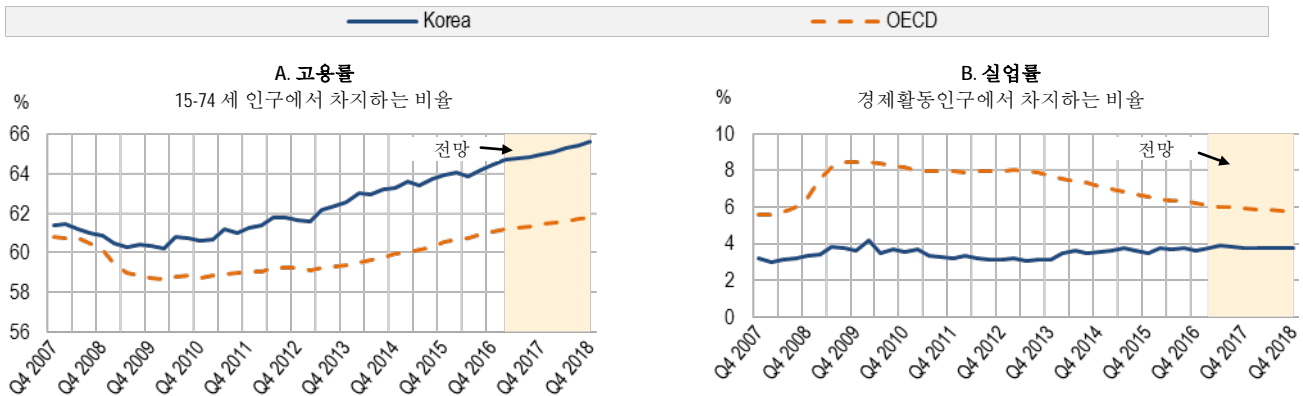


OECD 고용전망 2017 년 판은 최근 세계 노동시장의 흐름을 평가하고 단기 전망을 제공한다. OECD 고용전망은 또한 신규로 수립중인 OECD 일자리 전략 (jobs strategy)의 스코어보드에 근거한 노동시장 성과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력, 기술 변화와 세계화가 노동시장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별 단체교섭 구조의 핵심 차이에 대한 각각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DOI: 10.1787/empl_outlook-2017-en](https://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대한민국 노동시장 추이



주: OECD 가중 평균.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0, November 2016; OECD Employment database.

최근 노동시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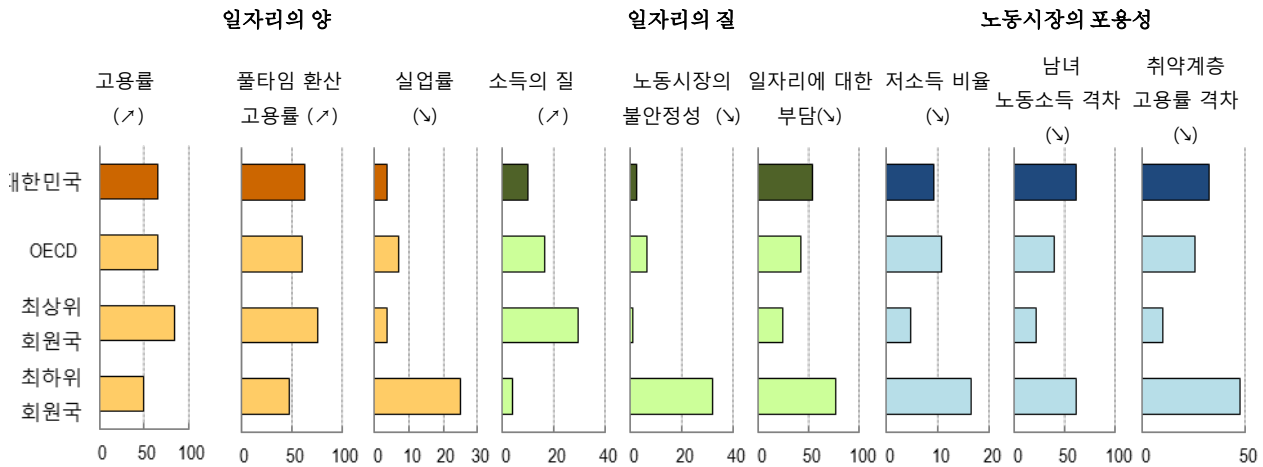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2017 년 1 분기 OECD 평균 고용률은 거의 10 년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OECD 평균 실업률은 서서히 하락해 왔지만 증가하는 노동시장 참가를 완전히 상쇄할 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못해서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18 년 하반기 또는 2019 년 상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은 국가별로 또는 노동시장내 대상별로 큰 편차가 있다.

-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 2017 년 4 월 현재 4.2%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등 지난 10 년간 3.5%에서 4.5% 사이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15-74 세의 고용률은 서서히 증가하여 2017 년 1 분기에 OECD 평균보다 3.5% 포인트 높은 64.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령자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것이다.

- OECD 는 대한민국의 고용률이 2018 년말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의 분절 (labour market segmentation) 현상이 매우 심한데,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영세 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300 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전체의 13.6%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중 가장 낮다. 반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낮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자 대표가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진 수 많은 10 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전체 종사자의 41.3%가 근무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10 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반면, 좋은 일자리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경험을 쌓더라도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 (stepping stone)이 어렵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스코어보드



주: **상방향기** (하방향 ↘) 화살표는 높은 (낮은) 수치가 나은 성과를 나타냄. **소득의 질 (Earnings quality)**: 소득의 불평등을 조정하여 미국 달러로 표시한 총시간당 수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Labour market insecurity)**: 종전 수입 대비 실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금전 손실. **일자리에서의 부담 (Job strain)**: 업무에 있어서 요구는 높은 반면 활용 가능한 자원은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 **저소득 비율 (Low income rate)**: 중위 가처분 소득 가구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근로연령 인구의 비율. **남녀 노동소득 격차 (Gender labour income gap)**: 남녀 평균 연간 소득 격차를 남성 평균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취약계층 고용률 격차 (Employment gap for disadvantaged groups)**: 핵심연령 남성과 취약계층 (자녀가 있는 여성, 청년 니트, 55-64 세 근로자, 비원어민, 장애인)의 평균 고용률 격차.

데이터 출처 및 정의: OECD 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2015 년 또는 활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보다 자세한 사항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Table 1.2. 참조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신규 OECD 스코어보드

OECD 고용전망 2017 은 종래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 표준적인 지표들을 넘어서 회원국 노동시장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스코어보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자리의 질 (수입, 고용의 안정성, 근무여건) 과 노동시장의 포용성 (소득의 평등, 남녀간 평등, 잠재적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포함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대부분 또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지표간 강한 상쇄효과 (trade-offs)가 없음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약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은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OECD 평균 이상인 풀타임환산 고용률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 등 일자리의 양에 있어서 주로 강점을 보인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소득 가구의 근로연령

인구의 비율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 반면, 대한민국은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 포용성의 여러 지표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 (average wage)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의 질이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자신의 일자리에서 부담 (job strain)을 느끼는 근로자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다.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남녀간 노동소득 격차에서 나타나는데 그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자녀가 있는 여성, 청년 니트,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핵심생산연령 남성 근로자와의 고용률 격차도 OECD 평균보다 높다.
- OECD 스코어보드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Contacts: Hyeongso Ha (+33 1 45 24 16 35; hyeongso.ha@oecd.org) or Paul Swaim (+33 1 45 24 19 77; paul.swaim@oecd.org),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